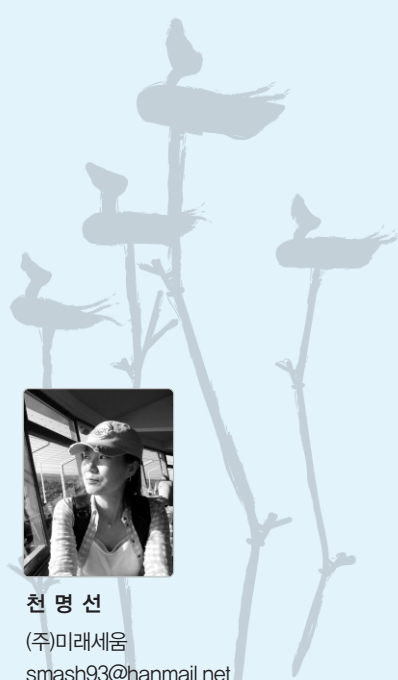


# 수의학과 사회, 수의학 교육의 새로운 흐름

근대 서구 사회에서 '수의사' 라는 직업이 전문직으로 자리잡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다. 18세기 중반 유럽의 수의학교 입학생 중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 이가 반도 안되었다는 웃지 못할 기록들이 남아있을 정도다. 300여 년이 지난 지금, 대학교 입학시험 점수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수의과대학의 교육은 그 시간을 고려할 때 패러다임이 바뀌어도 수십 번은 바뀌었을 것이다. 이보다는 짧지만 우리나라 근대 수의학교육 역시 이제 100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 수의학 교육은 한 세기의 역사만큼 성숙한 모습일까? 수의사 스스로, 또는 사회로부터의 급변하는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까? 20년 째 같은 포맷의 수의학 개론은 6년제 수의과대학 학생들에게도 과연 적절한 교과목인가?

지난 6월 5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는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개발되고 있는 '수의학과 사회' 교과목에 대한 평가회(연구책임자 서울대 수의대 류판동 교수가 열렸다(그림1, 1-1). 세계적으로 수의학 분야에서 전공기술 이외의 이른바 비기술적 능력(nontechnical competence)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근 20년 정도 최근의 일이다. 국내 의대와 치의대에서 프로페셔널리즘, 인문사회의학, 환자-의사-사회(PDS) 등 다양한 명칭과 프로그램으로 신입생들이 의료전문직으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점차 확대 강화하고 있다. '수의학과 사회' 교과목은 이런 흐름에 맞추어 수리학을 사회 속에서 동물과 인간, 수의사집단, 환경, 인문학과 연관 지어 생각하고 수의학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삼아 개발되었다.



천 명 선  
(주)미래세움  
smash93@hanmail.net

## 일반원고 I

+  
수의학과 사회, 수의학 교육의 새로운 흐름

【그림 1, 1-1】 수의학과 사회 교과목 평가회 발표



【그림 2, 2-1】 '수의학과 사회' 교과목 파일럿 프로그램



수의학과 사회는 그간 운영 중이던 수의역사, 수의윤리, 동물 복지 등 수의학과목에서 인문사회학적인 배경을 필요로 하는 과목들을 통합하여 수의과대학 교육 전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통합교과목이다.

교과목은 '생명에 대한 이해와 존중, 동물, 사회, 동료에 대한 윤리의식, 동물, 사회, 동료와의 소통'의 기본 가치와, '수의학의 본질 이해, 윤리의식과 책임감 함양, 관계와 소통의 기술, 자기 개발'의 기본 교육 목표를 바탕으로 총 32개의 세부주제로 구성되었다. 연구팀은 단계별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을 마친 후, 2년간의 연구결과물인 '수의학과 사회' 교재, 교과목 구성 및 학습목표, 교수설계 자료, 평가 자료, 강의 도우미를 연구과제의 취지에 맞춰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모든 수의과대학에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그림2, 2-1).


수의사들은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까? 임상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수의 윤리 사례를 수집해 본 결과 타 수의사의 진료 과실에 대한 대처를 포함한 수의학 진료의 질 보장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자와의 의사 소통 문제로 인해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회의를 가져본 수의사가 조사대상의 80%에 달하며 대학의 의사소통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수의사는 60%에 달한다.

근 2년에 걸쳐 교과목 개발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국수의과대학 학(과)장, 수의과대학 학생, 임상수의사들을 대상 설문조사에서 이미 전공이론 및 실무 지식과 더불어 수의사의 윤리적 가치 및 의사결정 능력, 의사소통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리더쉽 등 다양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드러났다. 사회 속에서 수의사가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교육과정에 대한 대학의 고민도 함께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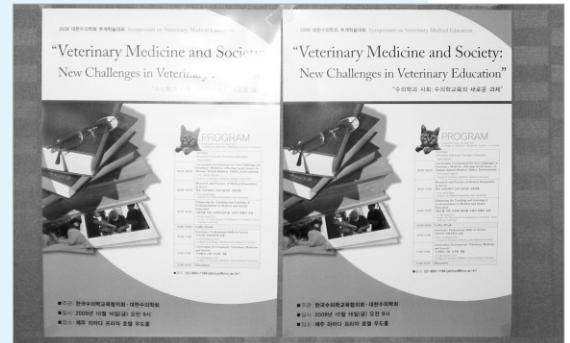
연구결과는 2009년 대학수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공유된 바 있다(그림3).

‘수의학과 사회’ 교과목에 대한 평가회는 각 대학 및 관련 기관의 수의학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개발된 교육 내용과 교과목에 대한 교육학적 분석, 실제 수의학 교육에 접목 사례를 보고 받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그러나 평가자들은 이 기회를 통해 ‘사회 속 수의사’에 대해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본 연구과제 책임자인 류판동 교수를 비롯해 참석자 전원은 ‘수의학과 사회 연구회’를 발족하고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로 결정하고 가을에 있을 대한수의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의 연구회 공식 출범을 기약했다(그림4).

산업동물 중심에서 반려동물 중심으로 동물진료 범주의 변화, 동물복지·생명윤리·연구윤리 의식의 발전, BSE 및 AI로 대두된 식품위생 제반의 문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수의사의 사회문제 참여 증대 등 사회적 등 시대적 변화를 고스란히 담아, 수의사의 역할은 이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어들었다. 수의학과 사회 교과목 개발뿐 아니라 21세기 수의사의 역량을 정립하고 미래 수의사의 정체성과 비전을 확립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수의사들의 직업전문성(professionalism) 분석이 시급하다. 이는 단순히 노동사회학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기초연구분야, 임상분야, 예방 의학 분야 등 수의사의 전문분야별 윤리 및 커뮤니케이션 사례 분석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조사연구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의학과 사회 연구회가 이런 움직임의 작은 시작이 되기를 기원한다. 

【그림 3】 추계 대한수의학회 심포지움 ‘수의학과 사회, 수의학 교육의 새로운 과제’



【그림 4】 ‘수의학과 사회’ 교과목 평가회 토론

